

콜롬비아대 교수 제프리 삭스 :

APEC, 디지털 발전 · 상호연통 · 지역 협력에 초점 맞춰야

페루 수도 리마에서 10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막된 가운데 콜롬비아 대학교 지속가능개발센터 교수 제프리 삭스는 각국 경제 수장들에게 디지털 발전, 상호연통, 지역 협력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삭스는 “현재 디지털혁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은 5G 시대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5.5G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년전 5G가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네트워크 속도가 10배나 빨라졌고 중국은 곧 6G 기술 발전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삭스는 “오늘날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시대의 기술 진보를 갈망하고 있다.”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창의중 하나는 ‘일대일로’ 창의로서 그 핵심 리념은 각국이 상호연통에 공동 투자해 새로운 항구, 고속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교통과 광섬유 네트워크 및 재생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경제지도자들은 이런 실질적인 협력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러한 협력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전히 중요한 지역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8일, 중국에서 온 전기버스가 아르헨티나 멘도사 거리를 운행하고 있다.

/ 신화넷

그는 “례를 들어 중국과 아세안(东盟)의 관계는 두 지역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며 “아세안은 중국의 기술 지원, 상호 연결, 선진적 발전 경험과 투자가 필요하며 중국에 있어서 아세안 또한 7억 5,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거대한 천연시장으로 협력 전

망을 심도 있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도 매우 긴밀하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남미회원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이들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중국은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식량, 사료와 자연자원을 대량 수입하고 또한 라틴아메리카에 선진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풍성한 성과를 이루면서 매우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국제방송

외교부 :

미국의 음흉한 속셈, 세상에 모르는 사람 없다

11일,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미국은 수년간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남해에서의 필리핀의 권리 침해 도발을 부추겨왔다면서 남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셈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 신화넷

외교부 :

해상 린국과 해상협력 검토 용의 있다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일관하게 분쟁 유보와 공동 개발을 창도해왔으며 주변 해양 린국과 협력하여 해상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더 나은 분정 통제, 협력 추진, 안정 수호, 상생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중국-인도네시아 운명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의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서의 공동 개발과 정부간 합동지도위원회 설립을

포함하여 더 많은 해상협력 포인트(亮点)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림검은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집행하고 관련 협력 성과가 조속히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림검은 중국은 주변의 기타 해상 린국과 공동 개발을 포함한 해상협력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김정은

조·로 〈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 비준

조선과 로씨야 사이에 체결된 〈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 조선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정령으로 비준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는 김정은이 11일 관련 정령

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금년 6월, 김정은과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평양에서 〈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을 체결했다.

/ 신화넷

남아메리카 ‘화원도시’ 리마



10월 13일 찍은 페루 수도 리마 옛 도시의 아마스광장 (드론사진) / 신화넷



11월 7일 찍은 페루 수도 리마 옛 도시의 산마르틴광장 (드론사진) / 신화넷

페루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리마는 태평양 해안과 안데스산맥 사이의 좁고 긴 하곡지대에 위치, 페

루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이다. 리마는 일년 내내 기후가 쾌적하여 남아메리카의 ‘화원도시’라는 아

름다운 명성을 갖고 있다. 리마는 유명한 역사문화도시로서 도시구역은 옛 도시와 새 도시 두 부분으로 나뉘

다. 많은 력사 유적을 갖고 있는 리마 옛 도시는 1988년에 세계문화유산명부에 올랐다.

/ 신화넷

중국 전력기업, APEC 정상회의 관련 행사 지원

페루, 전력 공급 능력 · 서비스 수준 모두 향상

“중국팀의 전력 공급 보장 관련 방법은 정전 위험을 효율적으로 낮추었

고 전력 안전 비상관리 능력을 크게 높였다.” 중국남방전력망 페루보루즈

에너지회사의 직원 후안 오초아는 중국의 경험과 방법은 현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력 사용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페루에서 열리는 제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의 등 중요한 행사에 더 나은 전력 사용을 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 31차 APEC 정상회의는 16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다. 중국페루보루즈에너지회사는 리마 북부 및 주변 1,600여기로부터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회의 관련 행사장 여러 곳도 이에 포함된다.

오초아의 소개에 따르면 회사팀과 중국측 전문가들은 모든 전력 공급 장소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전에 전력 공급 보장 관련 장비의 숨겨진 위험을 조사하고 순회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장비가 안전 작동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또한 APEC 회의 기간에 장비 순회 점검 빈도를 높이고 비상발전 차량을 배치해 전력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중국페루보루즈에너지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지 지역사회의 전기화 실현, 인프라 개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 제공 등 일련의 ‘작지만 아름다운’ 행사를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 신화넷



10월 12일, 리마에 위치한 중국페루보루즈에너지회사 전력배치통제센터에서 당지 종업원이 일상 전력망 감시통제 작업을 하고 있다.

/ 신화넷

이시바, 일본 제 103 대 수상으로 당선



1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본회의 현장에서 제 103대 일본 수상으로 당선돼 축하받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일본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11일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수상 지명 선거에서 승리해 일본의 제 103대 수상으로 당선됐다.

이날 오전, 일본정부 내각회의에서 이시바내각이 총사직했다. 이어 특별국회가 열리고 수상 지명 선거가 진행됐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후보가 없어 1, 2위를 차지한

이시바 총재와 제 1야당인 립현민(立憲民主党)의 대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가 2차 투표에 들어갔다. 여기서 이시바가 과반수를 획득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시바는 바로 내각 구성에 착수했다. 이날 저녁 일본 왕궁에서 수상 임명식과 각료 인준식을 마치고 이시바내각이 본격 출범되었다.

/ 신화넷

미국 칸자스주 동일지역 5명 총격 사망

미국 칸자스주 중부 도시 웨치토에서 10일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도시 남부의 같은 지역 세 집에서 5명의 남성 사망자를 발견했는데 모두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그중 한명은 총격수로 의심된다. 경찰은 이 총격사건들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연합(AP) 통신은 11일 웨치토 경찰의 말을 인용해 10일 오후 5시 44분께 경찰이 출동해 함께 신고를 처리하던 중 한 주택에서 남성 한명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단서를 토대로 거리가 좀 떨어진 다른 한 집으로 이동해 사망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후에 또 같은 동네에서 조사하면서 세번째 주택에서 사망자 한명을 더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자 5명이 서로 알고 지냈으며 나이는 39세에서 68세 사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망자 간 구체적인 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며 공공안전은 사건의 위험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구가 약 3억 3,000만명에 달하지만 민간 총기 보유량은 4억정을 초과해 총기가 범람한다. 총기 관련 폭력은 미국사회에서는 레사로운 일이다.

/ 신화넷